

떼인 돈 안 갚으면 무조건 사기죄?



김 대 희 변호사의

슬기로운 법 생활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게 되면 상대방을 사기로 고소하겠다는 말이 가장 먼저 나온다. 실제로 수사기관에 접수되는 사기 고소 중 차용금 사기 사건이 적지 않다. 그런데 막상 고소를 해도 혐의없음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적지 않아 고소인으로서의 납득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다. 돈을 갚지 않는 것과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이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한다(형법 제347조). 여기서 기망행위란 거래관계에서 지켜야 할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알았다라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사정을 알리지 않는 부작위도 기망행위가 될 수 있다.

차용금 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판단의 기준 시점이다. 판례는 편취의 범의가 있었는지를 돈을 빌릴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그 후 사업이 어려워지는 등



/유토이미지

사정이 변경되어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일 뿐 사기죄가 되지 않는다. 갚지 못한 결과가 아무리 중하다라도 그 결과만으로 거슬러 올라가 범의를 인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대역자가 채무자의 어려운 사정을 어느 정도 알면서도 그 위험을 감수하고 돈을 빌려준 경우라면 더욱 그러하다.

물론 채무자가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었다고 자백하는 경우는 없다. 그래서 편취의 범의는 차용 전후의 재산상태, 소득, 자금의 사용처, 변제를 위한 노력 등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해 판단하게 된다. 이미 변제기가 지난 다른 채무가 다수 존재하거나, 아무런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여러 사람으로부터 반복적으로 돈을 빌려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다면 차용 당시 이미 변제능력이 없었다고 평가될 가능성이 높다. 존재하지 않는 담보를 제공하겠다고 하거나 타인의 재산을 자신

의 것처럼 내세운 경우도 마찬가지다.

자금의 용도를 속인 경우도 문제된다. 사업자금이라고 빌려간 돈을 실제로는 도박이나 기존 채무의 변제에 사용한 경우, 대역자가 그러한 용도를 알았다라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관계에 있다면 기망행위가 인정된다. 이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변제능력이 있었는지와 무관하게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고, 나중에 돈을 모두 갚았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범죄가 없어지지는 아니한다.

고소를 준비한다면 차용 당시의 사정을 밝힐 수 있는 자료에 집중해야 한다. 차용증과 계좌내역은 물론, 돈을 빌리면서 어떠한 말을 했는지나 드러나는 문자메시지나 대화내용이 핵심적인 증거가 된다. 반면 단순히 돈을 갚지 않는다는 사정만을 적어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은 실익이 없다.

한편 사기죄로 처벌이 이뤄진다고 해서 빌려준 돈이 저절로 돌아오는 것도 아니다. 물론, 형사고소는 임의변제를 심리적으로 강제하는 수단이 될 수는 있다. 기본적으로 형사절차는 처벌을 위한 절차일 뿐이므로, 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민사절차를 함께 진행해야 한다. 결국 가장 확실한 방법은 담보를 수취하거나 돈을 빌려주는 시점에 상대방의 자력과 용도를 확인하고, 변제방법과 계획을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다. /법무법인 바른

‘골든타임’ 정기국회, 구체적 입법목표 밝혀야



김 지 수 협

박 태 홍
(정처부)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가 이재명 정부 집권 2년차 성공을 뒷받침할 ‘골든타임’이라며 입법 성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보여주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그러나 굵직한 쟁점 입법 시간 2~3개 외엔 민주당이 이번 정기국회 때 무엇을 하려는 지와 닿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민석 당 대표 집권 전후 3대 메가 프로젝트 지원할 메가특구특별법, 정부의 1·29 부동산 공급 대책을 뒷받침할 후속조치 법안 등이 정기국회 주요 처리 법안으로 눈에 띄는 가운데,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 대비 워크숍에서 100일간 어떠한 분야의 입법을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을 내놓지 않았다.

권철승 정책위의장의 정기국회 입법과제 발표를 듣고 언론에게 브리핑하러 온 원내대변인도 ‘주요 입법 과제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두루뭉술하게 답했고, 마지막 브리핑 때 메가프로젝트와 관련한 필요 입법을 5~6개 밝히는 정도에 그쳤다.

일례로 윤석열 정부 때였던 2024년 정기국회를 앞두고 실시한 민주당 워크숍에서 당 정책위원회는 경제살리기법 102개, 나라바르게 하기법 27개, 미래예비법 24개, 인구대비법 12개 등 우선 입법과제 165개를 선정했다. 이때 당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 정책위의장은 진성준 의원이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1년차인 2025년 정기국회를 앞두고 실시한 워크숍에선 국민체감 정책 입법화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민생 입법 102건, 진짜 성장을 위한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뒷받침을 위한 성장 법안 39건,

검찰·언론·사법 등 개혁 입법 완수를 위한 개혁 법안 44건, 재해·재난·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안전 법안 39건이 법안 별 주요 요지와 함께 소개됐다.

당시 당 대표는 정청래 전 대표, 정책위의장은 한정에 사무총장이었다. 이 가운데 민생 입법으로 소개된 은행 대출 가산금리에 법적비용을 제외하거나 일정비율 이상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은행법 개정안 등은 당해 정기국회에서 처리했다.

민주당은 마음만 먹으면 원하는 법을 통과시킬 수 있다. 윤석열 정부 시절 거대야당이었던 민주당이 그토록 원하던 ‘집권여당’이 됐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반복 행사할 일도 없다. 지도부가 이번 정기국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만큼 처리하고 싶은 입법도 각 분야 별로 다양할텐데, 이를 언론이나 대중에게 알리는 방법은 오히려 후퇴한 것 같아 아쉽다. /pth7285@metroseoul.co.kr

재미로 보는 오늘의 운세 8월 31일 (음 7월 19일) 포춘토리(www.fortunetory.com)



48년생 주변 상황을 잘 살피도록 하세요. 60년생 스스로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하지 마세요. 72년생 주변 사람을 잘 단속하세요. 84년생 행동을 조심하고 겸손해야 할 시기입니다.



49년생 일을 그냥 적당하게 처리하지 마세요. 61년생 두 번 생각해서 행동하세요. 73년생 여자의 말을 잘 따르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85년생 서북쪽으로 가면 아주 귀한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50년생 법은 시민들이 지키라고 만들어진 것입니다. 62년생 건강이 악화될 우려가 있으니 유의하세요. 74년생 지킬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86년생 타인과의 마찰을 조심하세요.



51년생 생각보다 피해가 클 수 있습니다. 63년생 주변인들로부터 원치 않는 오해를 받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75년생 항상 자신을 잘하도록 하세요. 87년생 주위를 면밀히 잘 살피도록 하세요.



52년생 사소한 일이라고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64년생 이성과 좋은 만남이 있을 수 있는 날입니다. 76년생 일시적 성공과 실패에 연연하지 마세요. 88년생 좋은 일은 다시 올 것입니다.



53년생 뿌린 만큼 얻을 수 있습니다. 65년생 열심히 노력하는 시기입니다. 77년생 지혜를 필요로 하는 시기입니다. 89년생 이상형을 아직도 못 만났으면 오늘 한번 도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54년생 겁 모르고 행동하면 길하지 못하니 차분히 행동하세요. 66년생 아랫사람을 대우해 주세요. 78년생 위험이 근처에 있습니다. 90년생 덕을 충분히 베풀지 않으면 반발이 있을 것입니다.



55년생 세상을 혼자서만 살 수 없습니다. 67년생 동료와 공동으로 일을 시작하는 것이 매우 길한 시기입니다. 79년생 좋은 아랫사람을 구하면 조금은 힘이 될 것입니다. 91년생 애정운이 길합니다.



56년생 금전운은 다소 불리합니다. 68년생 질병과 운전, 다툼을 조심해야 합니다. 80년생 역효과를 부를 수 있으니 행동을 조심하도록 하세요. 92년생 너무 조금하게 서두르지 마세요.



57년생 운만 믿고 행동하면 실패할 우려가 있습니다. 69년생 노력이 성공의 길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도록 하세요. 81년생 이동을 줄이고 근신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93년생 동쪽이 길합니다.



58년생 상대방을 헐뜯게 되는 실수를 하지마세요. 70년생 작은 문제가 커질 수 있습니다. 82년생 행동에 있어서 조심해야 합니다. 94년생 사람들을 만나도 집 근처에서 만나도록 하세요.



59년생 근신하듯 생활반경 안에서 생활해야 합니다. 71년생 많은 이동을 삼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83년생 작은사고가 일어날 우려가 많습니다. 95년생 여행은 되도록 피하세요.



김상회의四季

진화타겟, 타이밍

인생은 타이밍이라는 말을 농담처럼 주고받지만 사실 이 말은 삶을 살아가는 지혜라고 할 만하다.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병법도 타이밍을 중요하게 여긴다. 36계 병법 중 하나인 진화타겟이 그렇다. 진화타겟은 불이 난 틈을 타서 약탈한다는 뜻이다. 글자만 해석하면 냉혹하게 보이지만 핵심은 약탈이 아니다. 상대방이 느슨해진 순간을 노려서 승리를 가져온다는 것이 핵심이다. 즉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전쟁터에서는 물론이고 사회생활이나 인간관계에서의 승패는 타이밍에서 결정되는 일이 많다. 진화타겟은 바로 그 타이밍을 읽는 지혜를 강조하고 있다. 사업하는 사람에게 시장을 확장 기회는 경쟁업자가 실수하는 순간이다. 상대방이 지나친 자신감으로 긴장을 늦추는 시기에 시장을 뺏어오는 것이다.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은 어떤 산업이 새롭게 떠오르는지 살펴야 한다. 급성장하는 산업 분야에서 채용을 늘리는 타이밍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능력이 뛰어난 사람에게도 타이밍은 똑같이 중요하다. 능력이 있어도 타이밍을 놓치면 성과를 얻기 힘들다. 능력 이상으로 중요한 게 타이밍이다. 비즈니스도 경쟁 상대가 매너리즘에 빠져 방어가 느슨해졌을 때 움직여야 한다. 그런 순간에는 크게 힘들이지 않고도 평소에는 얻기 힘든 계약을 따낼 수 있다. 진화타겟 병법은 무조건 열심히 움직이기보다 언제 움직이는 게 좋을지를 먼저 살피라고 말한다. 정면으로 부딪치면서 어려운 싸움을 벌이지 말고 자기에게 가장 유리한 순간을 찾아야 한다. 이 병법을 자기 삶에 성공적으로 접목하기 위해서는 상황을 예리하게 관찰하는 눈을 길러야 한다. 상대방이 느슨해지는 순간을 알아채는 눈이 있어야 타이밍을 잡을 수 있다. 치열한 삶의 전쟁터에서 적은 에너지로 승리하는 슬기로운 방법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문제풀이: 3X3 스도쿠 X는 가로세로 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화색 9개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고난이도의 월드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결합형스도쿠

결합형스도쿠110

7	9		3					6
					8			1
		3		6		8		
	3							2
6		2				6		1
		7		4		1		
9			1					
5				3		9	4	

7			1				2	9
5								
		9		7		3		
				8				2
	7	4		6	1			
8			9					
		8		4		5		
4	9			3				6